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4>



기도에서 수행으로

한 비구니 사찰에 여자 신자 5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년에서 아주 젊은 여성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하는 일과 집안 배경이 다양하였습니다. 여인들은 한 달에 6일 절에 찾아왔습니다. 6재일(齋日)이라 하여 이 날 만큼은 세속의 잡다한 일도 잠시 쉬고 화려한 치장도 삼가며 수행자처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신자들의 중흥이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8계를 지키며 지냈는데, 8계란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남자와 교유하는 5계에 꽃이나 향을 뿌리고 장식하거나 떠들썩한 흥밋거리에 정신이 팔려 다니지 말라, 높고 넓고 잘 꾸며진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라는 세 가지 조항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 절을 창건한 사람은 위사카. 매우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떠들썩하게 웃고 놀고 집안을 자랑하던 여인들이 이렇게 재일(齋日)에 절에 와서는 절저하게 8계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습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5백 명의 여인들은 제각각의 대답을 하였지만 대체로 연령대별로 대답은 엇비슷하였습니다. 위사카는 그 여인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인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들려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사카여,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은 중생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대사(一大事)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시들고,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중생은 이 고 통스러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려고 발원하여 힘써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생사윤회의 밋줄로 자신을 쥘쥘 묶고자 애쓰고 있구나.” <법구경> 거해스님 편역, 고려원, 404-405쪽

“미령야, 나를 따라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겠느냐?”

저에게 불교라는 엄청난 세계를 열어주시고 익진 선생님께 20대 중반에 막 들어선 저에게 나직하게 물으셨습니다.

몇몇 범우들과 범회가 끝난 뒤 선생님 방에 들려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권유를 받은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하겠노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



성수 스님

(해동선원 조실)

“알고 싶은 마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지금 당장 목을 잘라 바칠 정도로 간절하게 물어라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물어봤자 천만 번 일러줘도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에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알고 싶은 그 심정에 꼭 찾아야 돼.”

올해 세수 83세인 성수 스님은 산청 해동선원(海東禪院)에 계셨다. ‘목’ 절 땅 대신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낸 ‘햇’ 땅을 찾던 스님께서 폐교를 인수해 ‘새끼 사자’를 기를 선원으로 가꾼 곳이다. 넓은 운동장을 가로 질러 차를 세우고 마당에서 풀을 뽑던 보살의 안내를 받아 스님께 인사를 여쭙었다. “기자들이 온다고 해서 불을 때웠지.”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었다. 수박이 차려진 쟁반이 들어오고, 스님은 한 조각 먹고 시작하라며 수박을 권하셨다.

“절은 뭐하는 곳이며 나는 왜 절에 다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다녀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데 왜 절에 다니고 절은 뭐하는 곳입니까?”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가르쳐 주는 곳이 절이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배우려간다는 것이 분명히 서면 물을 많이 많이. 입주문에 들어갈 때도 왜 입주문이나? 기동 두 개로 문을 세워 놔거든. 내 중심이, 목적, 포부와 기도와 희망, 중심이 딱 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입주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또 대중전만 해도 대중전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마음속의 팔만사천 번뇌를 다 항복받은 완전무결한 분이 있는 곳이 대중전이야.”

그러나 대중전에 들어갈 때는 팔만사천 번뇌를 다 때놓고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놈은 법당에 천년만년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 이 뜻을 알고 가면, 번뇌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법당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와야 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되지는 안 되는지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부처하고 대화가 되는 거라. 영생불멸(永生不滅)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진아(眞我) 세계에서 사는 어른하고 대화가 척 되면 천하만물은 무비선(無非禪)이요, 세상만사는 무비도(無非道)로다. 천하에 선 아닌 게 없고 세상만사는 도 아닌 게 없는 그 재미가 오도록 오도록 하도록 살게 되는 거라.”



성수(性壽) 스님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성수 스님은 여덟 살 때부터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될 꿈을 꾸다가 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4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자, 스님은 현대선원, 해동선원, 범수선원 등의 도량을 열어 ‘대한민국의 인재’를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다.

기대와 포부가 확실하면 물을 많이 참 많다고 했다. 이는 스님의 이력만 살펴봐도 쉬이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원효대사와 같은 도인이 되겠다는 포부 하나로 열아홉 살에 집을 떠나온 스님은 명인종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를 들었다.

“목을 바치고라도, 또 하루를 살아도 알고 살아야겠다는 포부가 머리까지 차서서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넘겼다. 그냥 ‘성수’가 된 게 아니라, 효봉 스님하고는 절일 만에 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맞아 죽기로 서약서를 쓴 사람이야. 효봉 스님은 조실

자격 없다고 욕보이고 다시 해인사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자격 없다’고 입방 허락이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자격 있는 효봉 하고 자격 없는 성수하고 누가 나은지 보자하고 변소에 가서 구멍에 다 장작개비 세 개 걸쳐놓고 거적 덮어쓰고 요놈의 효봉 때려죽이고 내가 조실지하고 악을 쓰고 앉아 있었어.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있어버리고 삼일동안 안 앉아 있었지. 그때는 분심이 나서 발을 일에 퍼넣어도 안 넘어가. 그렇게 육 일만에 팔뚝 굵던 열이 스승 내려가고 힘이 나서 ‘효봉 때려 죽인다’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수행으로 거듭나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이유에서 절에 와서 8계를 받고 재일을 지키십니까?”

그녀의 질문을 받은 5백 명의 여인은 제각각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노년의 여성 불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다음 천상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년 여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꾸만 늙어 가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에게 눈길을 줍니다. 제발 내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한눈팔지 말기를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갖 결혼한 젊은 여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서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딸보다 아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젊디젊은 여인들은 말했습니다.

“빨리 제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물도 좋고 정도 많고 돈도 많은 남자를 만나 하루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절에 와서 이렇게

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선생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세속의 일들을 접기에 매우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연애도 막 시작하였습니다. 자식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애착을 보이신 아버지를 핑계 댈지만 사실 저는 세상의 사랑과 유혹거리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던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후 선생님은 아버지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좀 이른 감이 없진 않지만 제 머리 카락에도 흰 빛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수행에 두 발 다 담그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위사카에게 대답한 여인들처럼 저는 아직도 생사윤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나의 진실한 삶을 위한 수행으로 거듭 나야 할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공생선원 개원 3주년 큰스님 특별법회

현대인의 생활 참선 수행법

깨달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줄 이번 초정법회에 공생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각회사 태백선원 고우 스님

- 재가자의 참선수행법
- 8월 21일 (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선원 헤거 스님

- 경전은 수행의 본 바탕
- 8월 28일 (일) 오전 10시 30분



화계사 국제선원 현각 스님

- 현대인에 맞는 참선수행법
- 9월 4일 (일) 오전 10시 30분

오시는 길

- 마을 버스 :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2번 출구로 나와서 마을버스 05,06을 타서 도봉 보건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 간선버스(파랑) : 100, 106, 107, 130, 140, 141, 150, 160, 161
- 지선버스(녹색) : 1018, 1019, 1118, 1120, 1121, 1126, 1148, 1151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TEL : (02) 900 - 2448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08호

http://cafe.daum.net/zenmaster

일요가족참선법회 / 청년법회 / 거사회 // 입문반 / 참선반 / 경전반

불교 유식학 강좌 학인 모집

불교의 유심사상이며 심리학인 유식학은 유심사관이요, 진여실관인, 禪의 이론적 요체를 담은 학문입니다. 수행은 세세생생 하는 것이요, 교학이 갖춰지지 않은 수행은 이론이 없는 종교와도 같은 것이니 뜻있는 동창 수학의 유연 도반을 모집합니다.

- ◆ 강사 : 오형근 박사 (동국대학교 前불교대학원장)
- ◆ 강의과목 : 유식학 (전과정 마스터)
- ◆ 개강 : 2005년 8월 25일
- ◆ 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법회일은 금요일)
- ◆ 학기 : 2학기 (방학 없음)
- ◆ 대상 : 스님, 일반인 (종파 관계없음)
- ◆ 접수 : 8월 15일까지
- ◆ 문의 : (02)496-3952~3

한국 불교 임제선학원

배우는 것이 불교



젊은 시절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도를 구했던 성수 스님은 돌부리 하나도 스승임을 알아야 공부 가 무르익는다고 강조했다.

생각이 다 바뀌어져지고 '효봉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 나와,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이 사무쳐서 내가 지금도 절이 곁게 나와. 효봉 스님의 자격 없 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절이 언제 냈 겠나 하고,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숨어서 살았 어. 이처럼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장벽도 부딪쳐야 절이 드는 거야. 대실패가 대성공의 어머니라 했잖 아. 도를 닦으려면 많은 실패를 해야 돼."

스님의 안목을 넓혀준 죽을 고비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는 '알고 싶은 마음 이 사무치면 돌부리 하나라도 스승 아님이 없음' 을 또 다시 일깨워주는 일화이다.

"내가 천하의 선지식한테 다 가서 질문해도 품 짝을 못하니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하고 내가 나 혼자 좋아서 사나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 파. 그렇게 다니다가 하루는 골짜를 지나가는데 한 아기가 '저 중 보라' 하는 거라. 한 명이 중 보라 하 니까 주위 아이들이 모두 불알 내 놓고 서서 손뼉 을 치면서 중 보라 중 보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항 복을 받았어. 가짜 중이다 이거야. 털 익은 중이다 이거야. 아이들 그 말 듣고 가서장삼을 몸에 댄 자 격도 없고 시주 밥 입에 댄 자격도 없다는 생각에 가서 장삼 불태우고 밥숟가락 놓고 산 속에 들어가 서 3년을 풀만 뜯어먹고 살다가 나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절이 좀 낫아. 그래서 전국에 법문 한다하

면 찾아가서 들어보면 다 나를 위해서 법문 하는 거라. 부처님 말씀도 한마디도 내 버릴 것이 없어. 경책도 읽어보면 예전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다 생각 했는데 어린애한테 한방 맞고 경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아주 급죽같은 귀한 말씀이고, 맛이 오도독 오도독 나는 말이야. 그래서 절이 든 거야." 별거술 이 어린애를 스승삼아 한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스 님에게 또 한번 크게 죽는 계기가 찾아왔다.

"토굴 지어서 살고 있으니 저우 사람들이 찾아 와서 귀찮아.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실컷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천성산 제일 높은 골짜기 안에 비어 있던 토굴로 들어갔어. 불을 지 피고 새벽이슬에 젖은 옷을 벗어 방에다 널어놓고 는 '이제 드디어 내 살 데를 왔구나' 하고 턱 얹어 좌선을 하니 너무 재미가 나는 거라. 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발자국 소리가 나서 젖은 옷을 도 로 주워 입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를바꾸기를 들고 나타나더니, '이 깊은 산중에 혼자 와서 삼니 까?' 하고 물어. 그래서 조용한데 공부 좀 실컷 하 라고 왔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거든. 그 말끝에 '물 소리 세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하고 되묻는데 그만 할 말이 없는 거라. 입이 안 떨어져. 멍하니 앉 아 있으니 그 여자는 물러가 버리고 몇 시간을 앉 아 있었는데 모르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로 좋은 말을 들은 거야.

들소리 세소리는 안 시끄럽나? 어디가면 안 시 끄럽나 이거지. 자기가 쉬어야지. 털 마른 옷을 그 대로 입고 도로 걸망지고 돌아와서 그 뒤부터는 사 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풍을 누든지,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거야. '물소리 세소리는 안 시끄럽습 니까' 하는 그 말이 평생의 스승이 된 거야."

말씀 내내 스님은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심이 분명해야 돼. 도사가 되고 싶으면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도사가 되느냐 묻고 배워야 되고, 어른이 되려면 어른 짓 하는 법도 배워야 돼. 묻고 배울 게 참 많아. 도를 배우러 왔으면 도를 배 워서 알고 찾아야 되는데 도를 모르고 도 닦는다고 앉아 있으니 도를 묻고 배우는 놈이 없어. 목적 회 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불공 기도 하는 것 이 불교가 아니야. 안 닦고 안 아프고 안 죽는 법 배 우는 것이 불교야."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면 비로소 진정한 사는 길, 즉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不殺) 길이 열린다 고 강조했다.

"살 줄 알고 살아야 돼. 늙으면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도 갈 곳도 모르지, 갈 길도 모르지. 가 야 될 놈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죽어서는 아우성을

“하루 세 번 5분씩이라도 자기한테 속지않고 당당하게 앉아봐”

쳐봐야 소용없어. 살아 있을 때 갈 곳도 갈 길도 알 아야 되고 갈 놈이 누군지도 만나봐야 돼. 자기가 자기를 만나 출을 한번 주는 것이 급선무야."

스님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밥 자기가 먹고도 남한테 욕먹을 헛짓을 하고 산다며 정신을 차리고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가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야. 종교는 눈을 중자고 교는 변함없는 진리야. 변함없는 진리를 배 우러 가는 곳이 절이야. 믿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해. 우리말로 하면 본보러 가는 거야. 흥내를 내 야 해. 부처님 되려는 흥내를 내면서 하루에 세 번 5분씩이라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보라 말이지, 그리고 참선(參禪)한다고 하면 참(參)자가 무슨 자인지 선(禪)자가 무슨 자인지 이 두자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돼. 이마를 닦는지 손 을 닦는지 공둥이를 닦는지 모르고 뒤야라 하는 놈 도 고안 놈, 그것도 모르고 닦는 놈도 바보 운달이 야. 욕을 해도 관잖아. 욕을 해야 팔뚝이가 나서 찾 아오지. 칼을 가지고 목 베러 오는 놈이 있으면 안 고 출을 한번 주겠어."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성수 스님의 '오도독 건강비결'

팔순이 넘어도 병환 한번 안가고 약 한번 약 먹었다는 성수 스님의 건강 비결은 뭘까? "몸이 편치 않는 것도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 다"고 강조한 스님의 건강 비결은 "담, 진, 치 삼독 세 도독을한테 풀려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도독한테 안 속으니까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나

게 살거든. 저그러봐라. 그러면 주름살이 생긴다. 우리도 이차돈처럼 흰 피도 만들 수 있고 독한 피, 더러운 피도 만들 수 있거든. 아침부터 이 놈의 새 끼야 하고 악을 쓰면 독한 피가 만들어지고 화내 고 지독한 소리 하면 소화도 잘 안되고 절로 병이 나게 돼."

또 한 가지 비결은 남 걱정, 남 탓 안하고 나 걱정 내 탓을 하면 사는 것. "대한민국에 욕이 석 십이

생겼는데 한 섬은 대통령 아저씨가 다 먹고 한 섬 은 국민이 나눠 먹고 나머지 한 섬은 내가 다 먹었 어. 허허. 그래도 내 입으로 한번도 욕 안했어. 욕 안하고 사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야. 욕하던 우선 자기부터 괴롭잖아. 욕 안하고 재미가 오도독하게 살면 몸뚱이도 재미가 오도독 나고 주름살도 없고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모두 좋아하게 돼 있어."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원정 스님

원정 스님에게는 스스로를 내놓지 않는 완벽 함이 있다. 모양과 형식이 원정 스님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추구하는 올바름이 그렇 다. 그래서 외적인 자존과 지존의 형식을 구애받 지 않는다.

스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정 스님이 결정 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 고 해서 따라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아니다. 바 른 길과 빠른 방법을 두고 돌아만 가려고 하는 확신에 찬 잘못을 고치는 시간을 준 것으로, 일의 성사나 성취를 준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난 뒤 스스로의 오만과 자만을 알게 하려는 남다른 배 려에서다. 그만큼 원정 스님에게는 넓은 품과 깊 이,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림 · 문병성

원정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74년 해인사 강 원 방부를 들이기 위해 후원 소임을 볼 때 다. 스 님은 총무소 소임을 맡고 나는 총무 시자를 맡았 다. 총무 시자로서 총무소를 들락거리는 일이 잦 았고 따라서 정이 들었다. 그 때 강원 입방을 했 다. 스님은 경반으로, 나는 처분반으로 방부를 들 었다. 당시의 선배란 하늘같아서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 또한 강원 을 졸업하고 나서 중앙승가대 시험을 보고 입화 식을 할때 원정 스님을 만났다. 선배 뿐 아니라 후배들도 여럿 있었다. 그때의 감회란 말로써 이 루 다할 수 없었지만 당시 승가대생 대부분이 법 랍 10년이 넘었다. 10·27 법난 이후라 모두 시 대의 아픔과 고통을 감추고 있는 듯 했다. 모두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원정 스님은 모두 가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각 방의 팔래를 기다 리는 양말들과 더러워진 고무신을 걸어다 깨우 기 살고 뒤에 가지런히 해놓고, 방사를 깨끗이 정 리하고서는 나중에 지방으로 내려가곤 했다.

스님은 승가대를 졸업하고는 성주사 주지를 맡았다. 당시의 성주사는 후미진 곳에 있는 낡고 낡은 작은 절에 불과했다. 그런 절을 맡아서는 신

도를 위한 불교요양대학과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대법회를 주관하였다.

설법전과 요사채 불사를 하기전에는 시간이 나면 전국 문화재 건축물을 일일이 돌아보고 참고도 했다. 유서깊은 기도터와 옛 가람터, 부석 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 강진 무위사 법당, 현대적으로 불사를 잘한 크고 작은 절과 심지어 유럽의 서원까지 돌아보았다. 그도 충분치 않았 는지, 당시 최고로 인정받고 있던 문화재관리위 원의 자문을 받으며 불사를 했다. 법당의 기둥과 문설주 문과 꽃살 문양과 포, 형식과 방법을 모으 는데만 3년이 걸렸다.

다른 사람들은 집 한 채 짓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했을 정도다. 옆에서 불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원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듯 했다.

그렇게 정성으로 지은 설법전과 요사채가 불 사 회향을 앞두고 불이 나 모두 타버렸다. 도서관 을 건립하기 위해 모아놓은 귀중한 도서들도 다 탔다. 경찰에서는 전기누전이라고 했지만 모두 가 이교도의 시기 질투로 벌인 짓이라 했다.

자신 드러내지 않고 매사 완벽함 추구

스님은 그일이 있을 이후로 무위(無爲)의 위를 이야기하곤 한다. 다시 말하면 만들기 위하여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드는 것이 아닌 만들어짐 이 있는 것, 즉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닌 흐 름과 호흡이 있는 자연스러움이 함께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이 지치고 힘들면 어느 자 리에서든 쉬고자 한다. 나무그늘이든 돌위든 좌 복에서든, 길 가에서든... 그런 뒤 다시 육신과 정 신을 추스려 일어서려고 한다.

그러나 원정 스님은 아니다. 육신과 정신이 힘 들고 지치면 육신은 나무그늘이든 돌 위든 좌복 위든 길가든 내려놓고 쉴며 쉬지만, 정신만은 옷 자락을 휘적거리면 청 대나무술 바람소리 내고 계속해 걷고 있는 것 같다. 옷자락 휘적거리라는 청 대나무 바람소리에 일어나 보면 가있는 거리의 차이를 느낀다. 벌써 저만큼 가 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 충분함으로 함께하고자 한다. 강태공이 공은 낚시로 시간 낚기를 기다린 것이라면, 원정 스님은 공간의 울타리로 시간의 초조함을 넉넉하게 하고 불완전한 갈등을 온전 한 완성으로 감싼다.

스님은 현재 강원 성주사 주지로 벗어나 교구 총회의원을 맡고 있다. 15년 전 하동에 폐교를 인수해 한가람 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선 재 청소년수련장도 만들었다. 틈바니 유지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스님은 미래 불교의 희망 어린아이 ·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다.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 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시연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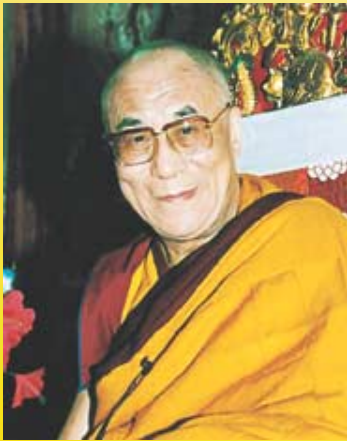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리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키슈키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8월 20일 - 27일(4박 5일) 749,000원
- 8월 24일 - 31일(3박 4일) 699,000원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전속스님 061-662-1607)